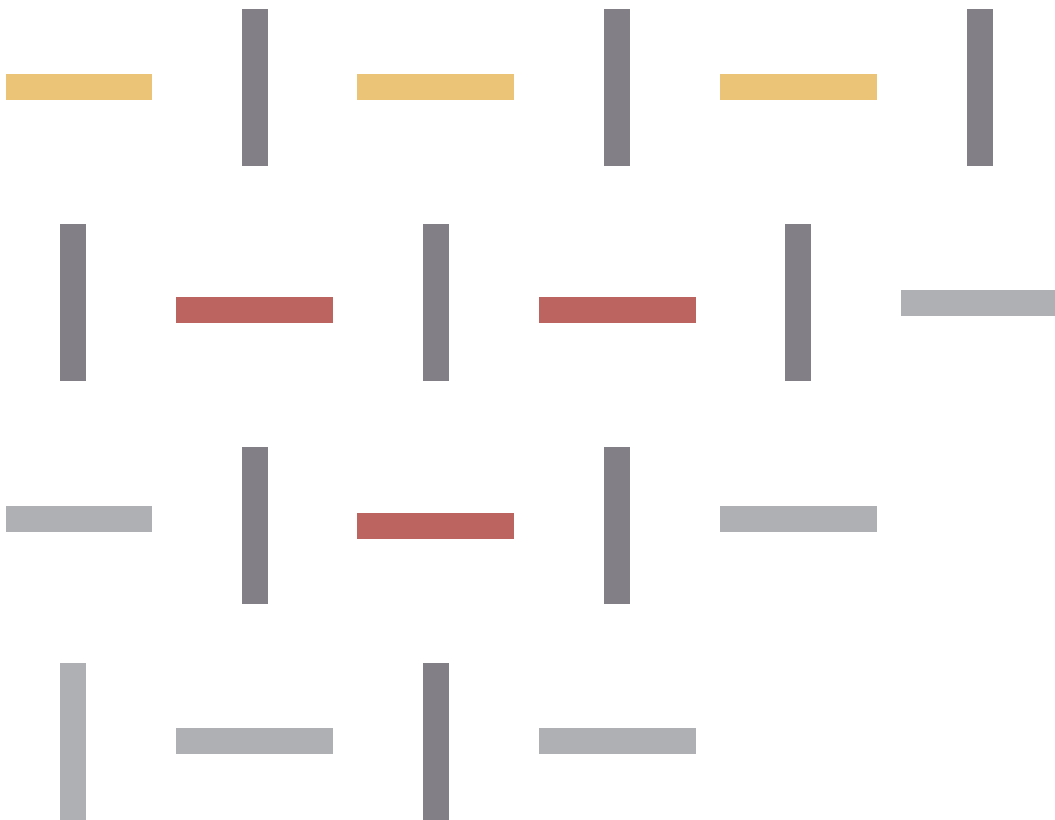


# 울산시민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Ulsan Citizens

이혜진



UWFDI 연구보고서 2018-07

# 울산시민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Ulsan Citizens

이혜진



# 울산시민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Ulsan Citizens

■ ■ ■

책임연구 : 이혜진(울산여성가족개발원 부연구위원)



# Content

## I. 서론

- 1. 외국인주민 현황 ..... 3
- 2. 다문화교육 선행연구 검토 ..... 10
-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3

## II.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25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6

## III. 결론

- 1. 울산지역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 55
- 2. 울산지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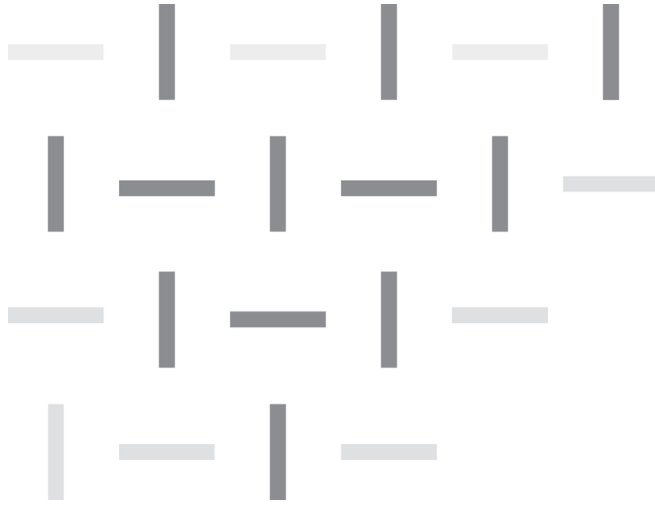
- 〈참고문헌〉 ..... 63

## 표·그래프목차

〈표 I -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	4
〈표 I -2〉 시도별 외국인주민 증감 현황 .....	6
〈표 I -3〉 외국인주민 증감 현황(성별) .....	7
〈표 I -4〉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감소 현황(100명 이상) .....	8
〈표 I -5〉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증감 추이 .....	9
〈표 I -6〉 울산광역시 구군별·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	10
〈표 I -7〉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정도 종합 요약 .....	18
〈표 II -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리스트 .....	26

## 그림목차

〈그림 I -1〉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	4
〈그림 II -1〉 2008 이주 워크숍 안내문 예시 .....	36
〈그림 II -2〉 2009년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안내문 예시 .....	38



## I. 서론

1. 외국인주민 현황	003
2. 다문화교육 선행연구 검토	010
3. 연구배경 및 필요성	013





## I

## 서론

## 1. 외국인주민 현황 1)

- 2017년 11월 1일 기준 한국에 있는 외국인주민<sup>2)</sup>은 1,861,084명으로, 2016년 1,764,664명에 비해 96,420명(5.5%) 증가하였음. 한국의 총 인구가 2016년 51,269,554명에서 2017년 51,422,507명으로 152,953명 증가(0.3%)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증가세가 상당히 높음. 유형별로 보면 국적미취득자 1,479,247명(79.5%), 국적취득자 169,535명(9.1%),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212,302명(11.4%)로, 2016년에 비해 국적미취득자는 65,489명(4.6%), 국적취득자는 10,088명(6.3%),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20,843명(10.9%) 증가하였음.
- 한국 총인구(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인구로 조사기준시점 전후 3개월 이상 국내 미체류자를 제외한 “실제 거주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6%임.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에서 2017년 1,861,084명으로 약 3.5배 증가함.<sup>3)</sup>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 1.1%(주민등록인구 대비)에서 2017년 3.6%(총인구 대비)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sup>4)</sup>

1) 외국인주민 현황은 행정안전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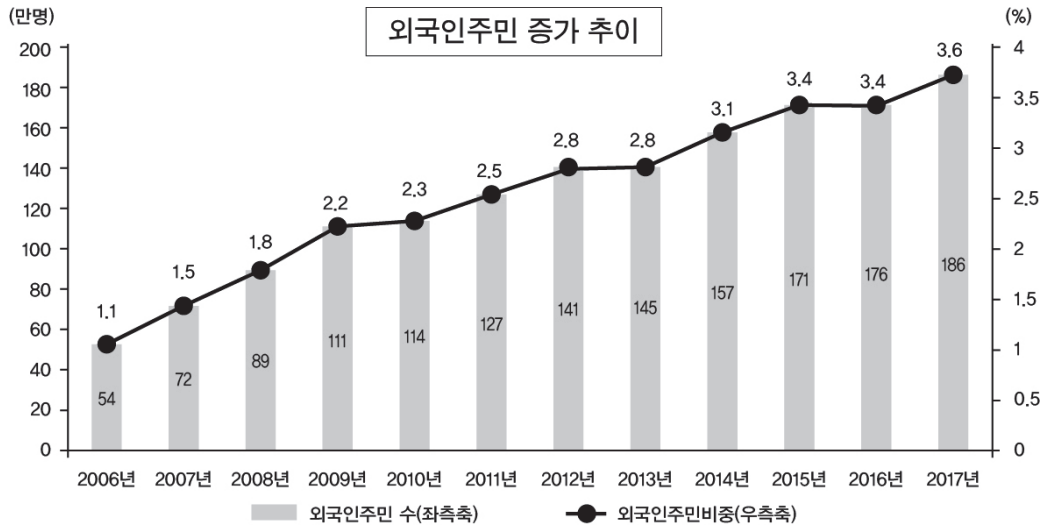
2) 외국인주민이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사람),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인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주민 자녀(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함.

3) 2006년 최초 조사 시에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만 조사(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은 미포함)하였음.

4) 이전 자료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현재 자료는 총인구 대비 비율이므로 통계기준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1-1〉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분석결과(최종), p.2 발췌

○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32.4%(603,609명), 서울 22.2%(413,943명), 인천 5.6%(104,441명) 등 수도권에 60.3%(1,121,993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울산에는 1.8%(34,373명) 거주하고 있음.

○ 시도별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충남 4.8%, 경기 4.7%, 서울 4.2%, 제주 4.0%, 충북 3.8%, 인천 3.6% 순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의 경우는 3.0%임. 전국 평균은 3.6%임.

〈표 1-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				
시도	총인구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합계	51,422,507	1,861,084	3.6	100
서울특별시	9,741,871	413,943	4.2	22.2
부산광역시	3,416,918	64,145	1.9	3.4
대구광역시	2,453,041	42,506	1.7	2.3

시도	총인구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인천광역시	2,925,967	104,441	3.6	5.6
광주광역시	1,496,172	34,412	2.3	1.8
대전광역시	1,525,849	28,404	1.9	1.5
<b>울산광역시</b>	<b>1,157,077</b>	<b>34,373</b>	<b>3.0</b>	<b>1.8</b>
세종특별자치시	276,589	6,761	2.4	0.4
경기도	12,851,601	603,609	4.7	32.4
강원도	1,521,386	31,123	2.0	1.7
충청북도	1,611,009	61,246	3.8	3.3
충청남도	2,162,426	104,854	4.8	5.6
전라북도	1,826,174	49,840	2.7	2.7
전라남도	1,792,319	55,504	3.1	3.0
경상북도	2,677,058	83,898	3.1	4.5
경상남도	3,345,293	116,379	3.5	6.3
제주특별자치도	641,757	25,646	4.0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분석결과(최종), p.4 발췌

- 외국인주민은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2016년 대비 증가인원이 큰 시도는 경기 32,225명(5.6%), 서울 9,906명(2.5%), 인천 9,771명(10.3%), 충남 9,301명(9.7%), 경북 5,559명(7.1%) 순이며, 감소한 시도는 울산 1,556명(△4.3%)뿐임. 울산의 경우, 2016년에도 1,024명(△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6년 대비 증가율이 큰 시도는 제주 16.0%, 세종 11.1%, 광주 10.4%, 인천 10.3%, 충남 9.7%, 강원 9.3%순이며, 울산만 △4.3% 감소하였음(전국 평균 증가율 5.5%). 울산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외국인근로자 구인 수요도 줄어들게 되어 외국인 주민이 감소하였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2〉 시도별 외국인주민 증감 현황

(단위 : 명, %)

시 도	2016년(A)	2017년(B)	증감(B-A)	
			증감인원	증감율
합계	1,764,664	1,861,084	96,420	5.5
서울특별시	404,037	413,943	9,906	2.5
부산광역시	59,872	64,145	4,273	7.1
대구광역시	40,251	42,506	2,255	5.6
인천광역시	94,670	104,441	9,771	10.3
광주광역시	31,162	34,412	3,250	10.4
대전광역시	26,656	28,404	1,748	6.6
<b>울산광역시</b>	<b>35,929</b>	<b>34,373</b>	<b>△1,556</b>	<b>△4.3</b>
세종특별자치시	6,084	6,761	677	11.1
경기도	571,384	603,609	32,225	5.6
강원도	28,469	31,123	2,654	9.3
충청북도	56,660	61,246	4,586	8.1
충청남도	95,553	104,854	9,301	9.7
전라북도	45,836	49,840	4,004	8.7
전라남도	53,066	55,504	2,438	4.6
경상북도	78,339	83,898	5,559	7.1
경상남도	114,594	116,379	1,785	1.6
제주특별자치도	22,102	25,646	3,544	16.0

(출처) 행정안전부, 지자체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분석결과(최종), p.6 발췌

○ 외국인주민 증감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2017년 전체 1,861,084명 중 남자 989,286명, 여자 871,798명으로, 2016년에 비해 남자는 42,725명(4.5%), 여자는 53,695명(6.6%) 증가한 것임. 울산의 경우, 2017년 34,373명 중 남자 19,260명, 여자 15,113명으로 2016년에 비해 △1,556명(△4.3%) 줄어들어,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508명(△7.3%), 여자는 △48명(△0.3%) 감소했음. 여자의 감소율보다 남자의 감소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울산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거주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I-3〉 외국인주민 증감 현황(성별)

(단위 : 명, %)

시도	2016			2017			증감(증감비율)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합계	1,764,664	946,561	818,103	1,861,084	989,286	871,798	96,420 5.5	42,725 4.5	53,695 6.6
서울	404,037	189,361	214,676	413,943	192,250	221,693	9,906 2.5	2,889 1.5	7,017 3.3
부산	59,872	31,901	27,971	64,145	33,841	30,304	4,273 7.1	1,940 6.1	2,333 8.3
대구	40,251	21,407	18,844	42,506	22,137	20,369	2,255 5.6	730 3.4	1,525 8.1
인천	94,670	50,587	44,083	104,441	55,363	49,078	9,771 10.3	4,776 9.4	4,995 11.3
광주	31,162	15,945	15,217	34,412	17,661	16,751	3,250 10.4	1,716 10.8	1,534 10.1
대전	26,656	11,817	14,839	28,404	12,647	15,757	1,748 6.6	830 7.0	918 6.2
울산	<b>35,929</b>	<b>20,768</b>	<b>15,161</b>	<b>34,373</b>	<b>19,260</b>	<b>15,113</b>	<b>△1,556</b> <b>△4.3</b>	<b>△1,508</b> <b>△7.3</b>	<b>△48</b> <b>△0.3</b>
세종	6,084	3,351	2,733	6,761	3,683	3,078	677 11.1	332 9.9	345 12.6
경기	571,384	319,501	251,883	603,609	336,239	267,370	32,225 5.6	16,738 5.2	15,487 6.1
강원	28,469	13,651	14,818	31,123	15,007	16,116	2,654 9.3	1,356 9.9	1,298 8.8
충북	56,660	32,446	24,214	61,246	34,907	26,339	4,586 8.1	2,461 7.6	2,125 8.8
충남	95,553	54,736	40,817	104,854	59,560	45,294	9,301 9.7	4,824 8.8	4,477 11.0
전북	45,836	22,557	23,279	49,840	24,301	25,539	4,004 8.7	1,744 7.7	2,260 9.7
전남	53,066	28,492	24,574	55,504	29,444	26,060	2,438 4.6	952 3.3	1,486 6.0
경북	78,339	45,097	33,242	83,898	47,540	36,358	5,559 7.1	2,443 5.4	3,116 9.4
경남	114,594	72,868	41,726	116,379	71,644	44,735	1,785 1.6	△1,224 △1.7	3,009 7.2
제주	22,102	12,076	10,026	25,646	13,802	11,844	3,544 16.0	1,726 14.3	1,818 18.1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분석결과(최종), p.7 발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100명 이상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거제시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영등포구, 영암군, 울산 동구, 울주군, 통영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경남 고성군, 울산 남구, 포천시, 성남시, 양주시 순으로 나타났음. 울산광역시의 전체 5개의 구군 가운데 3개의 구군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주민의 감소가 현저히 드러남.

〈표 1-4〉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감소 현황(100명 이상)

(단위 : 명, %)

연번	시군구	2016년(A)	2017년(B)	감소(B-A)	
				감소인원	감소율
1	거제시	14,340	12,267	△2,073	△14.5
2	영등포구	55,427	54,145	△1,282	△2.3
3	영암군	6,862	5,681	△1,181	△17.2
4	<b>울산 동구</b>	<b>6,707</b>	<b>5,916</b>	<b>△791</b>	<b>△11.8</b>
5	<b>울주군</b>	<b>12,222</b>	<b>11,495</b>	<b>△727</b>	<b>△5.9</b>
6	통영시	6,180	5,693	△487	△7.9
7	강남구	9,762	9,345	△417	△4.3
8	송파구	12,562	12,233	△329	△2.6
9	서초구	8,292	7,985	△307	△3.7
10	경남 고성군	2,701	2,395	△306	△11.3
11	<b>울산 남구</b>	<b>8,425</b>	<b>8,129</b>	<b>△296</b>	<b>△3.5</b>
12	포천시	18,271	18,070	△201	△1.1
13	성남시	29,199	29,013	△186	△0.6
14	양주시	11,550	11,394	△156	△1.4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분석결과(최종), p.18 발췌

- 울산광역시의 외국인주민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26,601명, 그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는 9,218명, 결혼이민자는 3,346명, 유학생은 1,171명, 외국국적 동포는 5,091명, 기타 외국인은 7,775명이었음. 한국국적 취득자는 2,950명이며, 외국인주민 자녀는 4,822명임. 2016년에 비해 외국인근로자가 △2,191명(△21.15%), 외국국적 동포가 △59명(△1.15%) 감소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자녀는 570명(13.41%), 기타 외국인 222명(2.94%), 유학생은 104명(9.75%), 한국국적 취득자는 65명(2.25%), 결혼이민자는 14명(0.42%) 증가함.

〈표 I -5〉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증감 추이

(단위 : 명, %)

구분	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017	34,373	26,601	9,218	3,346	1,171	5,091	7,775	2,950	4,822
2016	35,929	28,792	11,690	3,332	1,067	5,150	7,553	2,885	4,252
증감 (%)	△1,416 (△4.33)	△2,191 (△7.61)	△2,472 (△21.15)	14 (0.42)	104 (9.75)	△59 (△1.15)	222 (2.94)	65 (2.25)	570 (13.41)

(출처) 울산광역시, 2019년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p.1 발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7.11.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총인구 34,373명으로, 울주군에는 11,495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구 8,129명, 중구 5,916명, 북구 4,510명, 중구 4,323명으로 나타남.
-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외국인주민 인구가 1,000명이 넘는 읍·면·동은 온산읍 4,434명, 방어동 1,637명, 야음장생포동 1,440명, 무거동 1,181명, 언양읍 1,165명, 응촌면 1,144명이었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6〉 울산광역시 구군별·유형별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합계	34,373	26,601	9,218	3,346	1,171	5,091	7,775	2,950	4,822
중구	4,323	2,907	583	619	17	727	961	569	847
남구	8,129	6,406	1,526	816	715	1,397	1,952	724	999
중구	5,916	4,541	1,657	578	42	678	1,586	468	907
북구	4,510	3,079	1,304	525	0	374	873	486	945
울주군	11,495	9,668	4,148	808	394	1,915	2,403	703	1,124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2017.11.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통계자료

○ 한국의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외국인 주민 인구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과 근로 목적의 외국인주민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거주나 학업 목적의 외국인주민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다문화교육 선행연구 검토

### 1) 한국 다문화교육 문제점

○ 한국 다문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분절성이며 내국인과 이주민을 분리하는 다문화교육, 정책수행 기관별로 세분화되지만 내용상 유사한 다문화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다문화교육에서

‘문화’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며, 출신 국가에 따라 고정된 문화를 전제하는 문화 민족주의적 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한국인과 이주민이 ‘동시대인’으로서 소통하는 동태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편적인 사회적 소수자 지원과 연계하는 시각이 부족한 상황임. ‘다문화시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채로 다문화교육이 남발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은 단지 이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 곧 다문화 시민의 양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다문화교육의 비전이 모색되어야 함(황정미, 2010).

- 한국 사회는 다문화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음. 그러나 정책 집행 전담기구의 부재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증대,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학교 결과의 획일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정책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청사진을 마련하여 다채널 중복 사업에서 탈피함으로써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전재영, 2011).
- 다문화교육 실행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시한 연구에서는 첫째, 다문화교육과 교육과정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앞으로의 다문화교육 방향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적응교육 뿐 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개혁을 지향해야 하며, 다문화가정과 자녀 뿐 만 아니라 일반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제시되었음.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중심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 교과를 통한 다문화 교육과정 적용, 통합의 원리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생활 중심 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육에 근거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적용, 참평가의 실시를 제시함(장인실, 2015).
- 다문화사회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인정을 통해 개별 민족 집단들의 상이성 또는 차이점들이 계속해서 보존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기도 함. 민족(ethnicity)과 연계된 차이에 대한 인정이 차이의 실체화(essentialization)를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거꾸로 차이와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인정의 역설’이 있음. 다문화교육현장에서 일종의 구성물인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문화화(culturalization)’ 기제를 작동시키며 그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다문화아이’로서 ‘타자화(othering)’ 되기도 함. 이와 동시에 다문화교육현장의 교사들 역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해하지

##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못하고 한국의 다문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은 ‘문화적 차이’를 ‘발굴’하는 상황도 벌어짐(최대희, 2018).

### 2) 다문화교육 대상 및 주제

- 한국에서 이뤄지는 다문화교육 지원이 주로 다문화가정에 집중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수자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교육은 ‘다문화교육’으로, 다수자를 지원하는 교육은 ‘다문화이해교육’으로 용어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도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왜곡시켰음(장인실·김경근, 2012: 99, 임혜정, 2017: 5 재인용).
-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정부의 정책과 학교의 교육적 실천 이전에 운동적 차원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다문화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다문화교육의 수행주체를 크게 정부 및 지자체, 학교, 시민단체 등으로 나뉘었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연구도 이론적 연구나 단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음(임혜정, 2017: 5~6).

### 3)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 관주도로 이루어지는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다문화교육인력이라는 용어로 개념화가 이루어졌음. 아울러 다문화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를 기관 종사자 및 단체 활동가, 강의인력, 상담인력, 현장서비스인력, 언어지원인력으로 제시함으로 보다 명확하고 세부적인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의 방향이 제안되어진 바 있음(민무숙·김이선·이춘아·이소영, 2009).
- 정부부처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은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객관적인 평가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사업이 중복적임. 또한 다문화관련 예산도 중복되고 있음. 더욱이 다문화적 소양이 풍부한 다문화 교육인력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이효정·최현정, 2012).

### 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017년도 연구과제<sup>5)</sup>

- 앞에서 제시한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정착형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보임. 이에 지역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어떤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2017년도에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과제 2건이 수행되었음.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에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문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친구관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생활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울산광역시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프로그램에는 참가를 하고 있으나, 일반인대상 자녀양육프로그램(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이용은 저조하게 나타났고, 이용을 하더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가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차별 경험 정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음.

5) 이혜진, 김채운. (2017).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7-04., 이혜진, 김채운. (2017). 울산광역시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7-08.

## 2) 2018년 연구과제<sup>6)</sup>

- 2017년 연구과제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에는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를 수행하였음.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적 질서 속에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의제 발굴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음.
-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다른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인종, 국가 등)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상호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 설정(공존의 방향)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며,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할 때 출신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의미의 태도’(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함.
-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에서는 울산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을 하나의 지수로 묶어서 평가하지 않고, 8개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았음.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의 평균점수(5점 척도)를 살펴보면, 문화개방성 3.00점, 국민정체성 3.34점, 고정관념/차별 2.84점, 일방적 동화기대 3.22점, 거부·회피 정서 2.87점, 상호교류행동의지 2.78점, 이중적 평가 3.23점, 세계시민행동의지 3.20점으로 나타났음. 하위요소 가운데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국민정체성이었으며, 이중적 평가와 일방적 동화기대, 그리고 세계시민행동의지도 중앙값 3점 이상으로 나타났음.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울산시민은 아직은 다문화주의적 사고방식보다 자국민중심주의와 서구사회 중심적 사고를 더 강하게 가지는 경향을 보임. 다만, 문화개방성은 중앙값 3점을 기록하였고,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 정서는 중앙점 3점 미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회와 계기가 주어진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다문화수용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응답자 1,007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6) 이혜진. (2018).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8-01.

같음.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차별로, 여성은 남성보다 문화개방성이 낮고, 고정관념 및 차별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전반에 노출되어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불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문화개방성, 상호 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는 10대, 20대, 40대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60대 이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정서 요소는 6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의 인구가 많은 남구와 울주군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 역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이 기혼보다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행동의지가 높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종교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났고, 그 밖의 요소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종교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학력별로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행동의지에서 대학(4년제 미만)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초·중·고등학교 학력자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정서는 중학교 학력자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 목격 정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 양쪽 모두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 목격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정도는 다르지만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이중적 평가 요소 모두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을 목격한 적이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거의 없는 사람보다는 목격한 적이 가끔 있는 사람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목격 여부나, 목격한 내용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 요소 양쪽 모두에서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 요소 모두에서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따라서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약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 양쪽 모두에서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다만, 일반적 동화기대의 경우는,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음. 외국여행·거주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은 외국여행·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국민정체성의 경우는 외국여행·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보수적으로 나타났으며, 거부·회피 정서 요소는 외국여행·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음. 해외 유학·이주 의향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행동의지 모두에서 해외 유학·이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의향이 없는 사람들 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 정서는 해외 유학·이주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의향이 있는 사람보다 높게 나타남.
- 한국인 인정 요건에 대한 전체 평점은 3.78점으로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3.99점,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3.95점,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3.89점,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각각 3.77점,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3.7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인 인정 요건에서는 연령, 거주지, 혼인상태, 종교, 학력사항, 경제적 형편, 직업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의 '60대 이상', 거주지의 '북구', 혼인상태의 '기혼'과 '기타', 종교의 '불교'와 '기타', 학력사항의 '초등학교'와 '대학원 이상', 경제적 형편의 '하층', 직업의 '단순노무 종사자'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남.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성별의 '여성', 연령의 '60대 이상', 거주지의 '남구', 혼인상태의 '기혼', 종교의 '불교', 경제적 형편의 '중하층'에서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남.

- 한국인의 관용정도에서는 거주지, 종교, 경제적 형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의 '중구', 종교의 '불교', 경제적 형편의 '중하층'에서 한국인의 관용적 정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남. 한국 내 가장 큰 긴장관계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35.0%(352명), '다른 정치적 관점' 18.0%(181명), '다른 민족들' 15.5%(156명), '선주민과 이주민' 11.8%(119명)로 나타나고 있음. 한국내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는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 18.6%(187명), '나와 다른 민족 출신자들' 13.9%(140명), '이주민' 13.0%(131명), '나보다 부유한 사람'이 11.8%(119명), '다른 나라 사람' 10.8%(109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교의 영향에서는 거주지, 경제적 형편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지의 '울주군', 경제적 형편의 '하층'에서 종교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높게 나타남.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상황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가 48.3%(486명)으로 나타났고, '상호이해와 존중을 이끌어 낸다'가 36.3%(366명)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의 84.6% 이상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갈등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7〉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정도 종합 요약

(단위 : 평점)

	문항	평점(5점 척도)
다문화수용성 진단	문화개방성	3.00
	국민정체성	3.34
	고정관념/차별	2.84
	일방적 동화기대	3.22
	거부·회피정서	2.87
	교류행동의지	2.78
	이중적 평가	3.24
	세계시민행동의지	3.20
다문화 관련 접촉 정도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목격 정도	3.05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이주민 내용 접촉 후 느낌	3.20
	다문화 관련 활동 및 행사 필요성	3.35
한국인 정체성	한국인 인정 요건	3.78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	3.68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	3.01
다양성 포용정도	한국인의 관용 정도	3.14
	종교의 영향	3.16

(출처)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2018), p.134 발췌

-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에서 집단간 비교를 통해 울산시민들의 다차원적인 반응을 살펴 볼 수 있었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문화개방성이 낮고, 고정관념 및 차별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들이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인정, 공존의 가치 추구를 못해서 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팽배되어 있는 젠더폭력에 따른 불안, 위협에 대한 감수성이 남성과는 달라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설문조사 실시 당시, 몇몇 여성 응답자는 문화개방성에 대한 항목에 대해 ‘이주민이나 외국인이라서 꺼려진다’는 반응 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기 어려운 타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감정 때문에 보수적인 반응이 있었음. 타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그 사회의 건강성이나 안전에 대한 환경조성이 함께 이루

어려야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역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의 안전 인프라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 양쪽 모두에서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일반적 동화기대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다문화활동의 콘텐츠가 가진 가치나 철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무조건 다문화활동을 하게 되면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동화시키려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임.

- 외국인주민의 인구가 비교적 많은 남구와 울주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행동의지 요소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 역시도 높은 수준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외국인주민과의 접촉빈도, 목격빈도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임.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접촉 방식 및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 외국인주민들과 교류할 의지는 보이지만, 자신과 동등한 인권을 갖춘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보다는 한국인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어떤 다른 요소들보다도 평등의식에 입각한 상호교류의 방식에 대한 노력이 절실함.
-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상호교류의 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이것은 울산시민들이 울산이라는 지역을 근거로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기도 함. 아무리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활동과 대중매체에서 다문화를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면, 상호이해와 신뢰는 얻기는 어려움. 울산시민들은 상호교류의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양질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의 창출에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목됨.
- 현재 울산지역에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을 중심으로 상호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울산광역시/울산교육청). 그 외에 공무원 직장교육(울산광역시, 북구), 예비초등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 다문화교육(울주군) 등이 실시되고 있음.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은 동구에서 저예산(1백만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 다문화교육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상호교류행동의지는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볼 때,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하는데 다문화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본 조사에서도 다문화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 요소 양쪽 모두에서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 요소 모두에서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설문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60대 이상부터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을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을 일괄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실행주체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있는 다문화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울산시민에게 알맞은 다문화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반응과 변화를 환류시켜 다시 교육에 수렴하는 선순환구조로 진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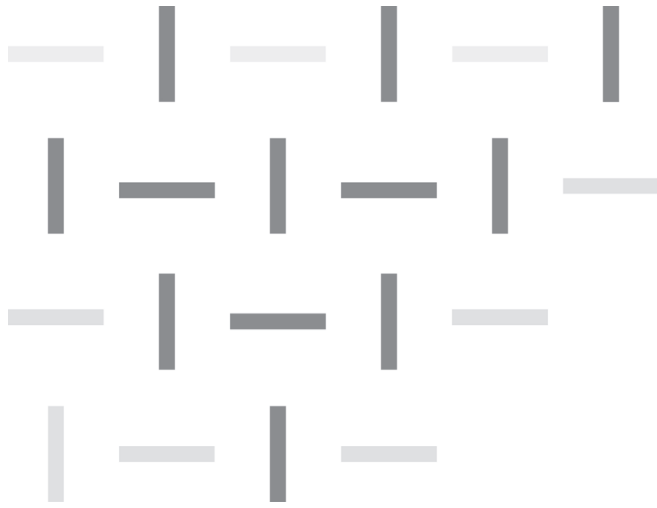
3) 본 연구 수행의 필요성

-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다문화 관련 연구과제를 통해,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주민들은 울산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자녀들 또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음. 외국인주민들은 주류사회의 일반시민 대상 서비스 사용보다는 외국인주민에게 특화된 서비스 사용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자녀들도 일반 아동·청소년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기도 함. 이것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제로도 작용하고 있음.

- 울산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통해, 울산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의 다양한 층위를 파악할 수 있었음. 외국인주민과의 접촉빈도, 목격빈도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접촉 방식 및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음. 울산시민들은 외국인주민들과 교류할 의지는 보이지만, 자신과 동등한 인권을 갖춘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보다는 한국인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어떤 다른 요소들보다도 평등의식에 입각한 상호교류의 방식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따라서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존 질서 속에서 발전적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됨. 이에, 외국인주민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을 자신의 이웃이나 가족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개발되어 확산될 필요가 있음.
- 우리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으나 (tangible multiculturalism),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 공생의 방식으로 체화해낼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해오지 않았음.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다문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모습을 살펴봄.





## Ⅱ.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                |     |
|----------------|-----|
|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025 |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026 |



## II

#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8년 12월에 서면자문 형태로 실시되었음.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성별은 여성 6명, 남성 1명이며, 연령대는 30~40대로, 5명은 NGO 활동가이며, 1명은 중앙정부 출연기관 소속으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1명은 시 위탁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의 활동가임. 다문화 관련 경력은 5년 이하가 2명, 10년 이상이 5명임.
- 현재 혹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다문화교육 소개(지향점, 대상, 목표, 운영기간, 강사모집 및 양성, 교육진행방식, 활용예산, 성공경험, 실패경험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중앙정부, 지방정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NGO 등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현행 다문화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및 우수사례 소개, 한국사회 다문화교육의 미래 등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표 II-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 리스트

연번	표기	성별	연령	소속기관	활동지역	경력기간
1	A	여	35세	중앙정부 출연기관	서울	10년
2	B	남	31세	가 NGO	부산	5년
3	C	여	47세	외국인근로자 전문기관	부산	18년
4	D	여	37세	나 NGO	부천	12년
5	E	여	32세	다 NGO	수원	3년
6	F	여	39세	라 NGO	천안	13년
7	G	여	44세	마 NGO	서울	14년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1) 다문화교육 유형

#### (1) 다문화교육기관

##### ① 가 NGO

##### ◆ 교육 목표

- ‘다문화’라는 말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뜻을 생각할 때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하는 것을 뜻함. 다문화 교육은 평등을 가치로 진행되어야하며, ‘다문화 교육’ 후 아동들은 이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아시아와 친구하기’ 수업의 목표는 어린이들이 아시아 문화 역시 ‘존중’ 받아야 하며 ‘가치’ 있는 문화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임. 이주민들의 출신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아시아와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아동들이 차별 없는 학급 문화를 만들고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목적임.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상황

- 가 NGO에는 다문화인권교육팀이 다문화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
- ‘아시아와 친구하기’ 프로그램 운영 : 이주민 강사들이 직접 자신의 모국의 문화를 강의하는 프로그램
- ‘우리동네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 우리동네(부산)의 다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투어’ 프로그램과 부산의 다문화 이야기를 통해 지도를 만드는 ‘지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이주와 인권’ 프로그램 운영 :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2016년에는 총 29회 153시간, 2017년은 총 85회 483시간, 2018년에는 총 84회 428시간 (초등학생 3,404명, 중학생 524명, 성인 192명)에게 제공하였음.

◆ 강사 모집 및 운영

- 2018년 현재 6개 출신국적 8명으로 구성된 이주민 강사단 운영
- 2002년 ~ 2016년 : 1:1 매칭을 통한 강사 양성 및 교육 진행
- 2017년 : 다문화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초교육 24시간 진행
- 2018년 : 다문화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초교육 16시간, 심화교육 14시간 진행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예산 상황

- 2002년 ~ 2015년 : 자체 예산 사용
- 2016년 : 해외 재단 기금 800만원, 자체 예산 사용
- 2017년 : 시 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후 협력사업 예산 1800만원, 해외 재단 기금 700만원, 자체 예산 사용
- 2018년 : 시 교육청 협력사업 예산 1500만원, 해외 재단 기금 600만원, 자체예산 사용

◆ 다문화교육 경험

- 2002년부터 시작한 다문화인권교육팀의 '아시아와 친구하기' 교육 사업은 전국 최초로 이주민 강사가 직접 자신의 문화를 주제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임. 다문화인권교육팀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2017년에는 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까지 이어졌음.
- 다문화인권교육팀은 2002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지만, 학교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야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 신청이 제한적이었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교육 대상들의 반응도 좋았지만, 교육 진행 횟수가 크게 늘지 않았음. 그러나 2017년 시 교육청과 협력사업 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학교에서 교육 신청이 크게 늘었고, 이는 연간 400여 시간 6,000여 명의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성과로 이어졌음.

② 나 NGO

◆ 교육 목표

- 나 NGO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워 기본적인 인권의 토대위에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간 상호문화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2000년에 설립된 이후 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상담을 했으나, 이주노동자를 상담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의 문제를 해결해도 변화가 없음을 인식함. 결국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2004년부터의 이주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호문화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음.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기부터 꾸준한 교육활동을 이어갔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공감하고 있음.
- 상호문화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일시적인 노력(일회성 강의 등)만으로 즉흥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음.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더해, 다양성을 즐기고 차별에 맞서는 동료 시민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상황

- 2004년 한 해 750명에게 교육을 시작한 이래, 교육 인원과 회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는 교육내용과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임. 2011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주최의 시민교육박람회에서 우수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다양한나라의 동화의 가치를 전하는 올리볼리 문화다양성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교육활동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 부천 뿐 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다문화교육 강사를 양성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함. 대구, 충남 아산, 제주, 경기 화성, 청주, 서울 등지에서 양성교육 또는 보수교육하고 있음. 2016년과 2018년에는 전국 문화재단의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연수를 진행했음. 학생교육 뿐 아니라, 교사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대전교육연수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교사연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교육 대상은 전문가 (관련 전문인력, 공무원, 교사 등), 초중고등학교 학생,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생,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 대학교 및 일반 성인임.
-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전문인력 연수 과정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다문화, 문화다양성, 인권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연수를 진행함.

- 자유학기제 더불어시민교육

: 한 학기동안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부천 지역 내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각 주제를 맡아 연합교육을 진행함. 이것은 지역 문화재단-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 '학교안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 주제는 인권, 노동, 문화다양성, 이주민, 소수자, 성평등, 연대와 실천으로 구성됨.

- 올리볼리 그림동화 교육

: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교육임. 다양한 이웃나라(레바논, 르완다,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티베트, 팔레스타인, 필리핀 등)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동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다양성의 가치를 전달함.

- 올리볼리 그림동화 강사 연수과정 진행

: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하여 강의를 할 강사를 양성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강사로 참여하며, 전국의 교육청과 협력하는 교사 연수 등에 강사로 참여함. 문화다양성 전반에 대한 이해 교육과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활용한 교육 예시에 대한 강의를 주로 진행함.

- 베스트프렌드(약칭 '베프')

: '이주자의 삶과 문화가 담긴 프로그램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난민, 북한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국사회의 이웃들과 만나 삶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 토크쇼 프로그램임.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서로 눈을 맞추며 토크쇼 손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질문을 주고 받는 따뜻한 자리임.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함.

- 음식공감

: 음식을 통해 문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임. 이주민 강사와 함께 이웃나라 음식을 만드는 전 과정에 참여함. 만드는 과정도 즐겁고, 함께 음식을 통해 문화이야기를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

- 찾아오는 교육, 축제 운영

: 강의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배움. 본 NGO가 운영하는

공간('문화공간 디디')은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여, 지역특성상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장 안에도 이주민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여럿 있음. 또한, 식재료를 파는 상점에서는 이웃나라 식재료를 판매하는 곳도 많음. 밖에서 흔하게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을 이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음. 문화공간 디디에서 가끔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공간으로 참여자들을 초대하여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시장 탐방을 통해 음식재료를 함께 구입하고, 이를 활용해 이웃나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기도 함. 또한, 영화를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함. '이주'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거나 퍼실리테이터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그리고 2012년부터 해마다 강남시장마을축제를 운영해옴. 축제는 그야말로 즐겁게 함께 어울리는 자리이므로 자신의 문화를 알리고 서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 강사 모집 및 운영

-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과정'(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정 다문화이해교육네트워크 지역운영기관 2011)을 수료한 네팔, 중국, 일본, 미얀마, 몽골 등에서 온 이주민 강사들과 선주민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다양한 강사양성과정을 직접 운영하면서 새로운 강사를 영입하기도 했고, 주변의 추천을 받기도 함.
- 강사들은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주 1회 회의를 통해 교안을 개발하고 보완하며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함. 또한, 매년 일정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며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체계적인 교안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그동안 단체에서 이주민 상담, 다문화교육, 축제, 지역활동 등을 추진해온 활동가(전문가)들이 운영하며, 전 과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이주민 강사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개별단위의 수업 뿐 아니라, 전체 강사단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측면에 기여하고 있음.

◆ 예산 상황

- 초기에는 주로, 단체에서 외부에서 별도의 기금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음. 무료로 교육을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제공해도 교육기회를 잡기가 어려웠음. 교육의 필요성에도 공감에 부족했고 본 NGO 자체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없었기 때문임.

- 교육을 시작한지 5년만인 2009년에 들어서 최초로 교육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받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 신청기관이 예산을 마련하여 교육을 신청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 2016년에는 교육을 시작한 이후 최초로 그 비율이 전체 교육에서 50%를 넘게 됨. 교육을 시작한지 1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내용과 단체에 대한 신뢰도 형성되었기 때문임.

◆ 다문화교육 경험

- 초기에는 학교 문턱이 높아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반면, 최근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함. 여전히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부하는 학교(담당교사)들이 있어 간혹 난처함을 느낌.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다루는 수업계획을 미리 받아보고, 다양한 나라 문화이야기를 들려주되, 이주노동자의 인권 이야기는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당혹스러움.
- 다양한 나라 문화를 쇼핑하듯 교육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음. 몇 해간 수업을 진행해오면서, 'OO 나라 선생님은 안계세요?' 라고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색적인 문화에 대해 접하고 싶은 욕구로 이해하지만, 다문화교육을 하는 이주민 강사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을 경우도 있음. 상호문화교육 선생님을 앞에 두고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의 아이를 가리키며 '이 아이는 엄마가 OO나라 사람인데요. OO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라며 비하하는 말을 할 때도 있음. '다문화교육'이라고 시작하는 순간, '재가 다문화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으나, 그럴 때마다,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수업을 시작함.

③ 다 NGO

◆ 교육 목표

- 다 NGO에서는 ‘다름아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다름아름은 ‘다름이 아름답다’의 줄임말로,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가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다름아름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자신 안의 다양성을 사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교육에 관심 있는 다재다능한 이주민들이 일을 함으로써 자아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상황

- 다름아름사업은 2009년에 시작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학교, 도서관 등 300여개 이상의 교육 기관에 매년 500시간에서 1000시간씩 수업을 진행하였음.
- 다문화이해교육 : 각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교육
- 다문화감수성교육 :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
- 이주민인권교육 : 각 이주민들의 인권 이슈에 대한 교육
- 세계시민교육 : 세계시민으로 각 나라의 인권, 난민 등의 이슈를 소개하는 교육

◆ 강사 모집 및 운영

- 공개적인 강사의 모집은 매년 1회 년 초에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 시 타기관이나 센터 내의 이주민의 연결망, 이주여성직업개발교육을 하는 기관 등에 홍보를 진행함.
- 연 1회의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함. 강사양성과정은 다문화이해교육과 다문화감수성, 세계시민교육을 나누어 교육함, 때에 따라 다문화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기도 함.
- 격월로 모여서 강사모임을 통하여 강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예산 상황

- 사업이 시작되던 해 2009년에는 여러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등록하여 진행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2013년부터 센터 내의 사업단으로 정착되어 예산 지원 없이 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강사료를 받아 진행하고 있음.

◆ 다문화교육 경험

- 2009년부터 초기에는 지원사업 등을 받아서 진행하였으나, 신규기관들에게 1회의 무료강의 후 예산 마련의 제안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한 인원이 적더라고 매년 강사 양성교육을 하는 것, 강사를 센터 내에 한국어교육을 듣는 이주여성 중에 발굴하고, 1:1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음.
-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으로 하려고 했으나, 담당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이 중지되었음. 한 선주민활동가의 의지를 넘어 참여 강사 이주민들의 역할이나 의지가 더 중요하고, 이들의 역량강화교육에 더 집중하고,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각 기관에서 비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강의료는 각 신청기관에서 주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강사양성교육을 다 해서 훌륭한 강사를 배출해내면, 더 많은 강의료를 주는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음. 그래서 강사진을 회원제로 하여, 회비를 내고 그 비용으로 교육 및 재료 구입을 하거나 공동 제작 작업을 하는 과정을 거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④ 라 NGO


◆ 교육 목표

- 지역에 이주민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거주 이주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교육은 많은데 비해, 지역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목표로 시작하였고, 진행하면서 이주민들의 당사자로서의 참여를 꾀하며 지역사회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음.

◆ 교육 프로그램, 교육 진행 상황, 강사 모집 및 운영, 예산 상황

- 2003~4년에는 한국인 기관실무자가 외부의 요청에 의해 특강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후에 2004~8년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설하고 모집하여 진행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이 전체 교육중에 '제 친구들과 인사하실래요?'라는 형식으로 이주민들의 경험나눔과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만남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8~10회기 교육에 1회기를 마련하여 진행하였음.(〈그림II-1〉 참조)

〈그림II-1〉 2008 이주 워크숍 안내문 예시

 내게 꿈을 주는 당신...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주민 100만 시대의 대한민국. 우리와 같이 숨 쉬고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어느덧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천안에도 1만 명 이상의 이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이 주민으로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모습의 그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나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아니면 그들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안 모이세**는 '관계형성'을 활동의 목표로 삼고,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단체로, 2004년 지역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 이제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사이에, 모두가 함께하면서 이쁨처럼 '모이세'가 되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자 교육, "제1회 함께 나누는 삶을 위하여.."으로 시작하여, "제2회 희망의 씨앗", "제3회 이주민, 한국사회. 그리고 다리가 되어", "제4회 어울림의 기쁨"을 진행하며 '이주'의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현실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함께 어울리고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5회 이주워크숍 이주없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뽕짜!! 경제 넘어서기]"**를 진행하며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2003년부터 이주민과 함께했던 모이세(MOYSE)가 가지고 있는 이주(Immigration) 및 이주민(Migrants)에 대한 생각과 현실을 '모이세 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모이세 다룬'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대한민국 안에서의 이주민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평화로운 지구촌을 위한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쌍방향의 소통을 가지며, "이주"에 대한 특별한 없이 주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다문화정책은 동계적 편견이 아닌 인권지향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같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번 워크숍에 이주민과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시기를 청하며, 뽕짜!! 가뿐하게 우리의 꿈을 함께 꾸기를 소망합니다.

- 문의 : 041.523.2666 / [camoyse@hanmail.net](mailto:camoyse@hanmail.net)

천주교 대전교구 이주사목부  
**천안 모이세(MOYSE)**



**제 5회 이주워크숍**  
**이주 없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폴짝!! 경계 넘어서기"**

- 대 상 : 이주민, 선주민들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
- 교육기간 : 2008년 6월 13일 - 7월 4일 (매주 토요일)
- 교육시간 : 오후 2시 - 5시 20분
- 교육장소 : 오릉동 성당 (별관 2층 교육관)
- 모집인원 : 40명 (선착순)
- 접 수 : 2009년 5월 25일(월) ~ 2009년 6월 5일(일)  
 교재비포함 ₩20,000원 (농협 485018-51-014388, 예금주 : 천안모이세)  
 \*접수는 입금 후에 완료됩니다. 환불은 없습니다.
- 문 의 : ☎ 천안 모이세 ☎ 041.523.2666 / Fax 041.568.2666  
 웹모임방 <http://cafe.daum.net/camoys> 이메일 camoys@hanmail.net

날짜	강의	강의 I (2:00~3:30)	강의 II (3:50~5:20)
6월 13일(토)		다문화에 대한 이해    Fr. 맹상학 (모이세 대표)	인권?!    "들" (인권교육센터 들)
6월 20일(토)		이주민 맞이하기    조옥행 (모이세 이주여성의 집)	미디어를 통해 본 이주민    유태균 (미디어로그)
6월 27일(토)		이주의 과거.현실.미래    우삼철 (야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평화로운 지구촌    Jokr (방글라데시 APEX)
7월 4일(토)		비영리 기관에서의 자원활동    이금연 (한국 GAMMA연구소)	이주민활동가 한마당    다문화강사 (이주민활동가)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년부터 이주민 중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를 지역에서 모집하여, 다문화강사를 양성 (<그림II-2> 참조)하고 다문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학교나 어린이집 주로 교육기관)으로 파견 하였음. 이를 기관에서는 “찾아가는 다문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연220회에서 시작하여 현재 2018년에는 연 450회 수업을 진행하였음.

<그림 II-2> 2009년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안내문 예시

**2009년「천안모이세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안내**

1. 과정명 : 2009년 천안모이세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2. 목 적 : 천안시 지역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전문성 있는 다문화 강사 양성
3. 선발인원 : 12명 내외
  - 양성 과정 후 수료증 발급 (양성과정을 80% 이상 수강한 자에 한함)
  - 수료자 중 우수자는 자체 심사를 거쳐 향후 천안모이세 다문화강사로 활동 예정
4. 참여대상 : 지역내 다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소명감을 갖고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 한국의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
  -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자
  - 자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자
  - 통역없이 교육과정을 이수 가능한 한국어 능력 소지자
  - 모든 교육일정에 참가 가능한 자
5. 참가비 : 20,000원
6. 선발절차 : 신청→1차 서류심사→ 면접심사→교육생 선발
7.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모이세 다문화 강사 신청서 양식.hwp
  -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http://cafe.daum.net/camoyse> 공지사항)
  - 접수처 : [camoyse@hanmail.net](mailto:camoyse@hanmail.net) / 천안시 오룡동 45-3(2F)
  - 연락처 : Tel. 041-523-2666 Fax. 041-568-2666 (천안모이세)
  - 접수기간 : 2009. 2.22(일) ~ 3.11(수)
8. 기타 : 교육과정 80% 수료시 “천안모이세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수료증 발급 예정
9. 주최 : 천안모이세
10. 교육과정 : 3.14(토) ~ 7.4(금) / 매주 금 2시 ~ 5시

II. 다문화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차시	일시	시간	주제	비고
1	3.14(토)	5시 ~	가족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	
2	3.20(금)	2시 ~ 5시	<특강> 선배 다문화강사초청	
3			출신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나누기	
4	3.27(금)	2시 ~ 5시	문화란?	
5			다문화란?	
6	4.3(금)	2시 ~ 5시	한국역사	
7			천안역사	
8	4.10(금)	2시 ~ 5시	아동발달과 심리1	
9			아동발달과 심리2	
10	4.17(금)	2시 ~ 5시	영화감상(다문화 관련)	
11	4.24(금)	2시 ~ 5시	동화구연1	
12			동화구연2	
13	5.1(금)	2시 ~ 5시	교수법(언어전달1)	
14			교수법(언어전달2)	
15	5.8(금)	2시 ~ 5시	교수법(흥미관심유발)	
16			교수법(진심전달하기)	
17	5.15(금)	2시 ~ 5시	교수법(PPT 기술1)	
18			교수법(PPT 기술2)	
19	5.22(금)	2시 ~ 5시	교안 구성1	
20			교안 구성2	
21	5.29(금)	2시 ~ 5시	연극의 이론과 실제1	
22			연극의 이론과 실제2	
23	6.5(금)	2시 ~ 5시	연극의 이론과 실제3	
24			워크숍	
25	6.12(금)	2시 ~ 5시	현장학습(박물관)	
26	6.19(금)	2시 ~ 5시	나라별 문화알기 및 체험(필리핀)	
27			나라별 문화알기 및 체험(중국)	
28	6.26(금)	2시 ~ 5시	나라별 문화알기 및 체험(베트남)	
29			나라별 문화알기 및 체험(파키스탄)	
30	7.4(금)	5시 ~	수료식(토론, 다과발표)	

○ 또 다른 형태로 다수의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위해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으로 체험과 교육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음. 교육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사, 학부모, 서비스직종, 보육직종, 경로당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였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년부터 5년 동안은 꿈이평화라는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을 통하여 이주민활동가들이 직원으로 참여하여 교육과 체험활동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였음.
- 기관의 자체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 정책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는 활동인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도 함께 연대사업으로 참여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분석, 모니터링하고 제안하면서, 다문화교육과 통번역예산 마련을 요구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함.(<그림II-3> 참조)

<그림II-3> 2012년 토론회 관련 안내자료

9월 20일에는 천안모미세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2012년 시민이 제안하는 복지도시 천안 토론회를 진행하오니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정도서관에서 2시부터 열립니다.  
 (토론회 전에 캠페인도 지난 토요일 4개지역에서 실시하였는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10개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스티커 투표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천안모미세에서는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1. 다문화 시대, 이제 우리 모두의 아이이자 며느리이고 친구입니다.**  
 -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활성화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실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농촌지역만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학교에서도, 시장에서도 다문화 가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주민 비율은 2.5%,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과 거리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학교, 공무원 등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어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존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이주민도 아플 때 관공서 갈 때 언어장벽 없이 이용해요.**  
 \_\_ 기관, 병의원에 통역, 번역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편의 증진 몸이 아플때, 국내 체류와 관련된 서류를 조정해야할 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위기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역이 되지 않아 행려병자로 처리, 6년 4개월이나 정신병원에서 감금생활을 한 ‘찬드라’씨가 있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당연하게 아플때 진료받고, 공공서류를 정리하고 작업을 하는 일이 이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입니다. 공공기관과 병원에서 이주민들이 어려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번역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 기관에서는 지역사회다문화사업이라는 찾아가는 다문화교육과 인식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단위로 운영은 3~12월까지 연중 진행하며, 3~4월에 강사보수교육과 함께 외부에 홍보를 하고 신청에 맞게 배정하여 활동가들이 교육을 진행함.
- 현재 기관에서 다문화교육진행은 수업시수 2시수를 1회기로 기본 진행하며, 1회기 10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1시수에는 '다문화'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 2시수에는 문화 이해 및 워크샵, 체험을 통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 강사 모집 및 운영

- 초기부터 진행하던 분들과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강사들이 있어서, 신규자들에게는 서류면접과 더불어 시연회를 통해서 참여를 결정함. 시연회에서 탈락되어도 강사들의 연중 모임과 회의 교육에 참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함.

◆ 예산 상황

- 기관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행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예산(인건비 및 운영비)으로, 교육과 체험사업 운영에는 시의 사업예산으로 진행하였음. 현재까지도 시의 사업비 예산은 정해진 예산은 아니지만 공모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비(찾아가는 다문화사업과 다문화인식개선사업)를 보조받아서 진행하고 있음. 강사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교육을 외부재단과 기관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함.

◆ 다문화교육 경험

- 꿈이평화라는 이주민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해당 NGO의, 지역에 기반하여 함께 제안하는 연대활동이 어우러져 지역사회에 '다문화', '이주'에 대한 인식을 정착시킨 것이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크게는 법인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활동가들의 역량부족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지 못함으로써 활동가들이 직장을 떠나고 '공동체형'으로 전환이라고는 하나, 활동이 주춤했음.



## 2) 현행 다문화교육 평가

### (1) 긍정적 측면

○ 지난 10여 년 동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해 많은 토론과 노력을 투자한 결과,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행착오들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 ①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 상호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많은 사람들이 차별인지 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차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 다문화 관련 활동이 많아지면서, '다문화'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보게 되었음.

○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해 이주여성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할 수도 있으며, 다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하는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도 가능함.

○ 점차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학교에서 먼저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음. 교사들의 인식도 변화하였음. 각 학교마다 학교의 분위기,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의지 등에 따라 좌우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하였음.

○ 한국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내용과 상관없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또한 각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별 년 1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을 권장하고 있음.

#### ② 공공기관 참여로 인한 예산 확보

○ 정부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을 운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예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 진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2017년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개소하기 이전에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입학 거부를 당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소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이주배경아동에 대해 입학

거부 사례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때, 공공기관의 참여는 지역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됨.

- 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해 다문화교육 보급으로 다문화수용성 확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들도 다양해짐.
- 중앙과 지방정부, NGO등에서 국가의 예산으로도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그 이유는 지향점 및 목표를 큰 틀 안에서 맞출 수 있기 때문임.

## (2) 부정적 측면

### ① 교육 내용

- ‘다문화교육’을 떠올리면 ‘다양한 나라 문화교육’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흔함. 대부분의 다문화 교육이 겉핥기식의 문화수업이고, 강사가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편견도 있음. 문화수업의 내용도 전통문화 일색인 것은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음. 음식 맛보기, 전통 의상/놀이 체험하기 등에 국한되는 것에서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생겨, 이주민 강사가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고, 이주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업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교육의 기회가 확대된 반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임. 다문화 수용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미 성인이 되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다름’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평등하게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내용의 교육도 병행되어야 함.

### ② 다문화교육 목표 설정 및 부서 간 조정

- 각 부처나 시민사회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의 목표가 조금씩 다름. 예컨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속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다문화교육이라기보다 유럽의 상호문화이해교육과 더 비슷함.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이해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은 한국의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춰 '존중' '평등' '다양한 가치 공존' 등의 큰 목표를 상정하고 인권교육이나 성평등교육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사회에는 둘 다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교육들이 중복될 때가 있어 조정이 필요함. 교육부도 교육대학을 대상으로 다문화양성과정들을 기획하고 있음.

-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같으나. 교육을 하는 다문화강사들의 수준은 천차만별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2013년 여성가족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재정비되는 듯 했으나. 또 다시 문화다양성강사, 코디네이터 등의 이름으로 타 부처 등에서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③ 낙인 효과

- '다문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주민과 결혼이주여성, 그 자녀들을 가두어 버리게 되어, 또 하나의 낙인이 됨.
-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함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본래 '다문화'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책용어로 쓰기 시작되면서 일부 집단(사람)을 칭하는 용어로 탈바꿈하였음.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표현하고, 그 자녀를 '다문화'자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다문화'는 구체적으로 '부족하고, 결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져 왔음. 경제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 보니, 선주민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 지적되고 있음. 그래서 중요한 가치를 담아 확산하고자 하는 교육명에 '다문화'를 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됨.
-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서는 '다문화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수업배정도 '다문화학생'이 있는 반으로 배정시키고 있음. 다문화교육이 다문화학생에게 하는 교육이나 혹은 그런 학생이 있어야만 같이 받는 교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④ 역차별 논란

- 다문화정책에 있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역차별’임. ‘역차별 논쟁’이 나오는 것은 당사자(국민과 이주민 그리고 다른 소수자들)들의 목소리가 빠진, 한국 정부는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문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이주민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거나, 물건을 받거나, 1회성 행사에 동원되었음. 그것을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이라 느끼며, 현재 한국사회에 일반 국민은 이주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다문화 감수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다문화 정서’만 쌓이고 있다고도 함.

⑤ 일자리의 기회는 협소하나 ‘양성된’ 강사만 증가

- 시민사회에서도 주로 다문화교육은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이주자)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음. 여러 양성과정을 거치지만, 이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양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양성된’ 강사들만 늘어날 뿐, 내용이나 프로그램 등이 계속 중복되고 있음. 또한 이 프로그램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양성된’ 강사들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3)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개선방향

① 다문화교육 컨트롤타워 설치

- 다문화교육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필요함. 교육부에서는 일선의 교사들이 재교육을 받아 다문화 교육을 하도록 희망하고 있고, 이들이 외부강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현실임. 또한 현재 ‘양성된’ 강사들에 대한 재교육도 매우 필요함.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이나 유럽의 ‘상호문화이해교육’이 아닌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 아래 교육 과정의 성립이 시급한 실정임.
- 다문화교육을 진행할 강사들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가 필요함. 다문화이해강사로서 다문화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양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 강사가 스스로 본인 나라에 대해 자료 찾는 것은 기본이지만 강사의 자세, 교습법, 그리고 다문화강사만의 한국말 대화법 등등을 정기적으로 교육 받아야 함. 지자체 기관마다 나름대로 그의 비슷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음. 프로그램이 중복되기도 하고 참석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능력 있는 다문화 강사를 위해 적절한 인건비와 혜택 또한 필요함. 그래야 한 가지만 집중해서 역량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임.

② 다문화 교육 내용

- 대부분 프로그램이 이주여성 강사가 하루 방문하여 자국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음식 만들기 체험 혹은 춤 체험이나 의상입어보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끝남.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하루 체험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많아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 보임, '다문화'가 1회성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음.
- 다문화교육은 인권교육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서로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초가 깔려 있어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음.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좋지만 인권교육 측면을 강조해서 접근해야 함.
- 교육을 진행하는 이주민강사들의 인권감수성 및 역량을 높여야 하고, 1회성 교육보다 한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학교교육에서 다른 나라 문화, 차이를 대하는 태도, 다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중요함. 학교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정=도와줘야 할 대상,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게 하는 삽화, 내용 등이 여전히 많음.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 이것이 교과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문화예술적 방법론을 활용한 교육이나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야 할 것임. 또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우수 사례를 지향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에 맞는 교육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함.

- 학교 등에서는 예산 혹은 지원의 문제로 다문화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교육부의 <2018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을 보면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해 연간 2시간 이상의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비교과 활동을 실시하라고 했지만, 실제 예산이 없어서 진행되는 학교들이 적음. 다문화중점학교만 구체적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다문화교육은 그 의미나 범위도 다양하고 큰 만큼 여러 차례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강사의 질 담보

- 다문화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냐의 문제가 중요함. 초창기에 비해 다문화강사들의 티칭 방법은 말할 수 없이 좋아졌고, 몇 년 사이에 대학에 다문화 관련 학과들이 우후죽순 생겼음. 다문화교육을 하는 강사의 다문화수용성은 편차가 있음. 대부분 공교육 학교에 투입되는 강사 풀인데, 차라리 기존 교사들의 직무연수 시 다문화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교육에서 교육공학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담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강사의 다양성에 더 주목할 때 살아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이 될 것임.

④ 이주민의 의견 반영

-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래의 의미와 무관하게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아동’이라 하면 엄마가 외국인인 사람이며 가난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동을 지칭하는 단어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충남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예비학교’ 대신 ‘예비학교’로 ‘다문화 특별학급’ 대신 ‘한국어 학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모든 교사 및 이주민 관련업무 공무원에게 다문화인권감수성 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다문화인권교육은 확대되어야 함. 교사를 위한 다문화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주민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이주배경 가족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주민 학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했고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임. 학교의 행정정보와 용어를 이해하기는 어렵고 학교에서는 한국어로만 안내하고 있어 충분한 정보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2018년 3월부터 다문화 가정에 통번역 서비스 제공, 11개 언어로 가정통신문, 예방접종, 건강검진, 소풍, 안내장 등 번역 지원, 학부모 상담 시 통역 지원, 통역은 3일전 번역은 1주일 전 시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은 100%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

### 3) 시민 다문화교육 확대 방안

#### (1) 다문화교육 목표 설정

- 한국의 많은 교육들이 항상 모든 교육이 선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혐오나 다양성에 대한 차별이 일어난 후에 해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다문화교육을 전반적인 다양성으로 인식하여 상시, 혹은 이주민과 같이 살기 위한 것을 넘어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발전해야 할 것임.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음. 그 전 시민 안에는 이주민도 선주민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각 대상별 교육계획안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특히 요즘 한국에 늘고 있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언어위주의 교육이 아닌 활동위주의 교육이 개발되어야 하고, 특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성장하면서, 그들이 그 나라 언어로 다문화 교육, 인권교육 등을 들을 수 있도록 이주민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다문화교육을 '이주민 포용,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통합'이라는 협소한 개념에 토대를 두고 정의하는 것은 교육의 방향을 상당히 왜곡하는 문제 있는 접근이기에, 최대한 다문화주의정책의 기념 개념 즉,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자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교육의 틀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여러 다른 주제로 활동하는 그룹과의 협업이 도움이 됨.

- 현장에서 교육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지역성인임. 특히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을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못할수록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편견을 갖기가 쉬움. 이럴 때 이슈화된 자료나 뉴스, 혹은 정치적으로 옳은 입장(Political Correctness, PC)만을 주장하게 되면, 지역성인들이 반감을 갖기 쉽기에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접근이 어려운 성인교육(전체시민)을 위해 고민한 방법이나 NGO의 베프(베스트프렌드의 약자), 음식공감, 마을축제 등임. 교육이라는 형태로 접근한다고 하여 강의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문턱 낮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더 작은 단위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시도들이 필요함. 다양한 시민 주체가 상호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

## (2)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 ① 부산 사례\_주민센터와 연계

- 2017년 6월, 가 NGO는 '부산광역시 장전1동 주민센터'와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 8시간 다문화교육을 진행했음. 당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근처 부산대학교에 유학생들이 늘면서, 장전1동에 유학생들이 거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주민들은 새로운 주민인 유학생들의 모국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NGO에 신청함.
- 다문화인권교육팀은 필리핀 문화수업 & 전통 춤 수업, 인도네시아 문화수업 & 전통 요리 수업, 몽골 문화수업 & 캄보디아 문화수업, 인권교육, 토론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함.
- 교육 후 주민들은 이주민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유학생뿐만 아니라 부산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이주민들을 단지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위해 온 사람이 아닌,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봐야하겠다는 평가를 하였음.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② 수원 사례\_시민단체와 연계

- 수원지역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아래에 각 시민단체들이 모여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을 하다 보니, 다양한 관점 내에서, 또한 그 민주 시민교육 내에 다문화교육을 녹여내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서, 다른 지역과 함께 시민의 일환으로 다양한 이주민들이 혹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4) 한국사회 다문화교육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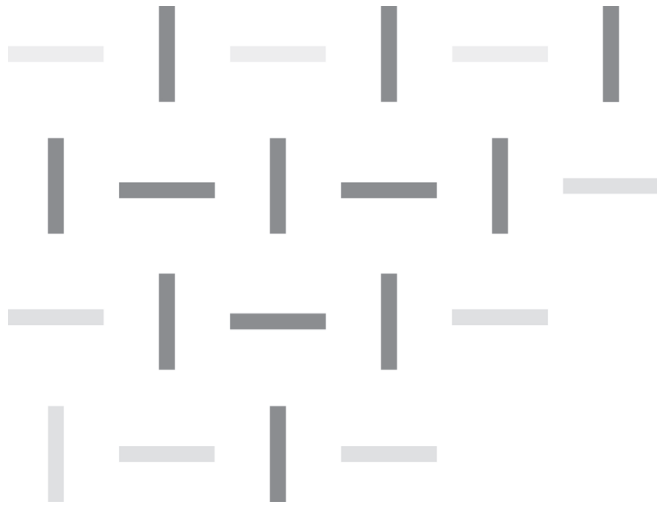
(1) 편견을 지우는 작업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들을 지우는 작업이 필요함. 특히 이주자들이 ‘그냥 돈을 벌러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중요함. 그 한 방법으로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것임. A전문가의 사례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진행했을 때, 그 지역이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높은 구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예를 든 적이 있었으나. 교사들의 반응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지역의 일이다”라는 반응을 하였음. 가까운 곳이지만 접하는 경험이 적으면 그럴 수밖에 없기에, 우선 지역 성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에서 출발해야 할 것임.
- 최근 한국사회에서 ‘인종주의와 혐오표현’이 화두임.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시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수면아래 있던 인종차별이 드러났음. 앞으로 다문화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데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에서 다름을 차이로 인정하자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함.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캠페인이나 언론을 통한 인식개선활동도 병행되어야 함.

(2) 다문화교육 발전 방향

- 현재 다문화교육은 대부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다문화인권교육팀의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 일반 시민들은 다문화에 대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지만,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현실임.
-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함. 한국 사회는 이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함. 그에 대한 해답을 다문화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임. 다문화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이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음. 시민들에게 재밌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차별과 편견없는 사회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함.
- 이주민들과 혹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다문화교육은 초·중등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 시민들도 다문화이해교육을 평생학습과정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함.
- 다문화교육을 '이주'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도 중요함. 이를 전달할 매개자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함. 기존에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학계 뿐 아니라, 현장의 경험도 고려되어야 함.





### Ⅲ. 결론

- 1. 울산지역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055
- 2. 울산지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058



## III 결론

### 1. 울산지역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 한국의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외국인 주민 인구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과 근로 목적의 외국인주민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거주나 학업 목적의 외국인주민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어떤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 2017년도의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에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문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친구관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생활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울산광역시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 가정에 특화된 프로그램에는 참가를 하고 있으나, 일반인대상 자녀양육프로그램의 이용은 저조하게 나타났고, 이용을 하더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가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차별 경험 정도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음.
- 2018년도의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에서 집단간 비교를 통해 울산시민들의 다차원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문화개방성이 낮고, 고정관념 및 차별 정도는

■ 울산광역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설문조사에 응한 여성들이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인정, 공존의 가치 추구를 못해서 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팽배되어 있는 젠더폭력에 따른 불안, 위협에 대한 감수성이 남성과는 달라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설문조사 실시 당시, 몇몇 여성 응답자는 문화개방성에 대한 항목에 대해 '이주민이나 외국인이라서 꺼려진다'는 반응 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기 어려운 타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감정 때문에 보수적인 반응이 있었음. 타자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그 사회의 건강성이나 안전에 대한 환경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의 안전 인프라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교류행동의지, 세계시민 행동의지 요소 양쪽 모두에서 다문화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일반적 동화기대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다문화활동의 콘텐츠가 가진 가치나 철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무조건 다문화활동을 하게 되면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동화시키려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재 울산지역에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을 중심으로 상호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울산광역시/울산교육청). 그 외에 공무원 직장교육(울산광역시, 북구), 예비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울주군) 등이 실시되고 있음.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교육은 동구에서 저예산(1백만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됨. 다문화교육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상호교류행동의지는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볼 때,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하는데 다문화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도 다문화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개방성, 상호교류행동의지 요소 양쪽 모두에서 다문화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 요소 모두에서 다문화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음. 설문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60대 이상부터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을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교육을 일괄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실행주체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다문화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울산시민에게 알맞은 다문화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반응과 변화를 환류시켜 다시 교육에 수렴하는 선순환구조로 진행되어야 함.

- 울산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통해, 울산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의 다양한 층위를 파악할 수 있었음. 외국인주민과의 접촉빈도, 목격빈도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접촉 방식 및 내용에 따라서 외국인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음. 울산시민들은 외국인주민들과 교류할 의지는 보이지만, 자신과 동등한 인권을 갖춘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보다는 한국인보다 ‘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어떤 다른 요소들보다도 평등의식에 입각한 상호교류의 방식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따라서 지역사회의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존 질서 속에서 발전적 사회통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됨. 이에, 외국인주민 대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을 자신의 이웃이나 가족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개발되어 확산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이른 시기부터 다문화교육을 담당해 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음. 장기적으로 다문화교육을 해 온 기관이나 활동가가 지역사회의 다문화교육 확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주민에 국한되지 않은 확장된 지역네트워크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평등가치추구 및 공존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2. 울산지역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 1) 다문화교육 컨트롤타워 지정

- 현재 울산에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다문화교육을 담당해 온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NGO도 가시적으로 들어난 바 없음. 문화개방성은 높으나, 이중적 평가 정도도 높은 울산시민에게 다문화교육은 제공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총괄하는 다문화교육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울산광역시청과 울산교육청, 그리고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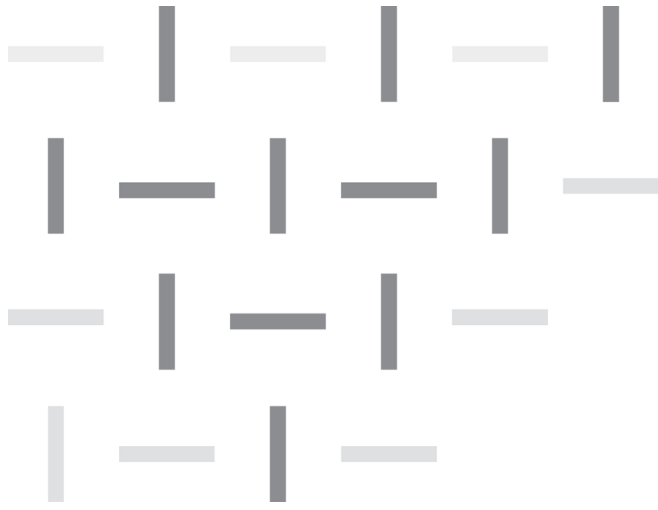
### 2) 다문화교육 내용 관리

-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이주여성 강사가 하루 방문하여 자국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음식 만들기 체험 혹은 춤 체험이나 의상입어보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임.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하루 체험하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쇼핑'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문화교육은 인권교육이라는 인식 하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문화교육을 진행하는 이주민강사 및 선주민강사들의 인권감수성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야 하며, 특강 형식 보다는 한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다문화수용성의 향상이 있을 것임.
- 다문화교육강사의 다문화수용성은 편차가 있기에, 강사의 다양성에 더 주목하고, 교육의 질적관리가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이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진행할 강사들을 양성 하고 역량을 강화가 필요함. 다문화이해강사로서 다문화양성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나, 강사의 자세, 교수법, 그리고 다문화강사만의 한국말 대화법 등등을 정기적인 교육 필요함.

### 3) 다문화교육 확대

- 다문화교육을 전반적인 다양성으로 인식하여 상시, 혹은 이주민과 같이 살기 위한 것을 넘어선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발전해야 함.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이주민과 선주민을 모두 아울러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문화교육을 ‘이주민 포용,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통합’이라는 협소한 개념에 토대를 두고 정의하는 것은 교육의 방향을 상당히 왜곡하는 문제 있는 접근이기에, 최대한 다문화주의정책의 기념 개념 즉,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자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교육의 틀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교육을 했을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지역성인임. 접근이 어려운 성인교육(전체시민)을 위해 강의 방식뿐만 아니라, 토크콘서트, 휴먼라이브러리, 마을축제 등 교육이라는 형태로 접근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함.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작은 규모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시민 주체가 상호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을 지역사회에 넓히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민무숙, 김이선, 이춘아, 이소영. (200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6-3).
- 이효정, 최현정. (2012). 다문화 교육인력 양성의 비판적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13, 123-158.
- 이혜진. (2018). 울산시민 다문화수용성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8-01.
- 이혜진, 김채운a. (2017).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 보고서 2017-04.
- 이혜진, 김채운b. (2017). 울산광역시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실태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2017-08.
- 임혜정. (2017).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인실. (2015). 다문화교육 실행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33(2), 45-70.
- 전재영. (2011). 학교 다문화교육의 위험 요인 및 극복 방안 탐색. 초등도덕교육, 36(0), 285-307.
- 최대희. (2018). 다문화교육 현장에서의 '다문화아이'와 타자화. 대한정치학회보, 26(1), 33-57.
- 황정미. (2010).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담론 201, 13(2), 93-123.



## 울산시민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발행인 : 이미영

발행일 : 2018년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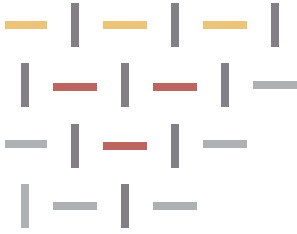
발행처 :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주소 \_ (44717)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전화 \_ (052) 276-8553

팩스 \_ (052) 276-8556





UWFDI 연구보고서 2018-07

## 울산시민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Ulsan Citizens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  
ULSAN WOMEN &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본 자료의 저작권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20번길 24

T 052-276-8553 F 052-276-8556 www.uwfdi.re.kr

비매품/무료



9 791196 4579142

ISBN 979-11-965791-4-2